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⑤ 사회초년생 재테크

청약저축 필수,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를

저축·지출 습관이 향후 20년후 자산규모 결정
월 투자금액 10~20% 노후대비 장기투자 해야

몇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사회 초년생들. 서서히 업무에 적응이 되어가고 월급도 몇 번 받고 나면 목돈을 어떻게 만들어야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건물의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사회에 발을 들인 초년의 저축과 지출습관이 향후 10년, 20년 후의 자산규모를 결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재테크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대비 지출관리가 안되고, 금융 지식이 부족해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무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금융상품에 무작정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습관은 무계획적인 지출로 이어져 종잣돈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하는 고정 투자금액을 확보할 수 없으며 돈을 저축한다하더라도 비효율적인 투자방식을 고집해 자산형성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먼저 철저한 지출관리로 잉여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월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안을 작성해 그 달에 사용할 생활비를 미리 확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과소비를 조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예금잔액만큼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잉여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를 저축해 종잣돈을 만들어야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단기적으로 결혼자금과 주택관련자금이 필요하므로 이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주택청약 뿐만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입주권리를 주는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또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리가 높은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과 주식형 적립식 펀드가 가장 효과적이다.

단, 은행에서 주로 추천을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7년 이상 투자해야하며, 사회 초년생은 월급이 많지 않아 연말의 소득공제액도 크지 않으므로 차후 급여인상을 대비한 절세계좌 확보 차원에서 하나 정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집중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위험에 대한 관리와 노후자금을 위한 장기투자를 시작해야한다. 예기치못한 사고, 질병으로 인해 어렵게 저축한 돈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망보장 위주의 종신보험보다는 실손보장형의 건강보험이 효과적이다.

또한 월 투자금액의 10~20%는 노후를 위해 장기투자해야한다. 사회 초년생에 노후가 너무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노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생각보다 길다. 따라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해 복리수익률을 극대화한다면 40세 이후에 2배 이상을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다.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카드 해외사용 고삐 풀렸나

4~6월 석달새 11억9천만弗…작년비 31·늘어

환율하락과 해외여행자의 급증으로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4-6월 거주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은 11억9천4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6%나 급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올해 1분기의 10억4천600만달러에 비해서도 14.1%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수도 174만6천명으로 작년동기 대비 20.2% 늘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9.5% 증가했다.

1인당 신용카드 해외사용금액도 684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9.6% 증가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계속 급증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함께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수업의 도입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2분기에 내국인 출국자수는 268만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10.2% 증가했다.

특히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자수가 8월중에 연중 최대규모를 기록하는 데다 10월초 추석 황금연휴 등을 감안할 때 3·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은 또 한번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홑벌이 4,000만원 맞벌이 6,000만원 세금 같다?

정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불구 여전히 차이 심해

'혼자 4천만원을 버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가 내는 세금이 6천만원을 버는 맞벌이 근로자 가구와 같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키로 해 독신이나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으나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은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여전히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세제에서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천만원인 홑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은 214만원 가량으로, 같은 소득의 맞벌이(남편 2천400만원, 배우자 1천600만원 기준) 가구의 세금 39만원에 비해 175만원이나 많다.

이 상태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홑벌이의 세금은 214만원으로 변화가 없고, 맞벌이 가구의 세금은 39만원에서 46만원으로 7만원 늘어나지만 여전히 홑벌이의 세금이 168만원 많다.

마찬가지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6천만원인 홑벌이 근로자의 세금은 522만원으로 같은 소득의 맞벌이(남편 3천600만원, 배우자 2천400만원) 가구의 세금 200만원에 비해 322만원이 많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면 홑벌이는 변화가 없고 맞벌이는 214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나지만 그 차이는 308만원 가량 된다.

따라서 4천만원을 버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가 내는 세금은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될 경우 맞벌이 6천만원인 가구가 내는 세금인 214만원과 같아지는 셈이다.

또 6천만원을 버는 홑벌이 가구의 세금 522만원은 맞벌이로 8천300만원 정도를 버는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 같이 홑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맞벌이 가구보다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개인별 과세체계인데다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가 많게 돼있기 때문에 소득을 각각 나눠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맞벌이 가구의 세율이 홑벌이보다 낮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홑벌이·맞벌이 세금 비교

소득 4,000만원 가구 (단위:만원)

구분	홑벌이		맞벌이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독신	231	248	-	-
2인	223	231	42	51
3인	214	214	39	46
4인	197	189	36	37
5인	180	155	30	28

소득 6,000만원 가구 (단위:만원)

구분	홑벌이		맞벌이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독신	539	565	-	-
2인	531	539	209	231
3인	522	522	200	214
4인	505	497	192	188
5인	488	463	175	154

올 가을 어떤 스카프 유행할까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24일 전문 코디네이터가 제안하는 올가을 유행예감 스카프들을 선보였다. 신세계는 기하학적인 페이즐리 무늬나 화사한 꽃무늬가 포함된 스카프들을 제안했고(사진 위쪽) 롯데는 차분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이미지가 강조된 스카프들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팔면 주가하락 "NO"
경제 저성장은 곧 악재 "NO"

삼성증권 "증시 고정관념, 그릇된 투자"

삼성증권은 24일 한국 주식시장 환경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온 고정관념이 그릇된 투자의사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외국인 매도와 저성장 등 증시에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온 재료들을 다른 관점에서 봐야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우선 '외국인이 팔면 주가는 내린다'는 인식을 버려야 할 첫 번째 고정관념으로 꼽았다.

증시 개방이후 몰려들며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애정은 식어가고 있으며 이 관심이 대신 '브릭스'(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고성장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아울러 최근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공세에도 과거와 달리 주가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35조원에 달하는 주식형 펀드 등에서 보듯, 커진 국내 기관의 힘을 반영한 것임을 강조하며 외국인이 팔아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삼성증권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점도 다수의 시각과 달리 주가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은 경기의 진폭축소와 안정성장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기업이익과 주가의 변동성 축소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장기 투자와 주가 재평가의 초석이 된다는 게 삼성증권의 지적이다. 삼성증권은 특히 저성장은 구조적 저금리와 자산 재분배를 가속화하는 촉매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성장의 결과로 투자형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또 최근의 주가반등이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이를 타파해야 할 고정관념으로 꼽았다. /장필수기자 bungy@